



연극으로 여는 인생 2막 '열정가득'

“옛말에 쇠눈이 커도 의논이 크텐 해수다. 우리 서로 서로 의논허멍 우리마을이 서로 화합하고 의지허멍 행복한 마을, 멋진 마을로 만들어가 보게양.”

지난 7월 23일 오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미예랑 소극장 연습실. 공연을 앞두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제주 사투리를 써 가며 대사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에서 운영하는 ‘빛누리실버연극단’의 단원들. 대사를 읊는 단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이 연극단은 지난 2007년 8월 창단한 제주 최초의 노인 연극단이다. 당시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들이 직접 연극을 통해 노인 문제를 다뤄보자며 희망자를 모집해 연극단을 만들었다.

이후 요양원과 양로원, 노인 대학 등을 찾아다니며 수습회에 걸쳐 공연을 펼쳤다. 이 연극단은 연극을 통해 노인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공로로 2008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단원은 여자 5명, 남자 1명 등 모두 6명. 지난 5월 오디션을 거쳐 5기 단원 2명이 새로 합류했다. 나머지 4명은 2008년 이후 가입한 2~4기 멤버들로 연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단원들이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빛누리실버연극단’ 단원들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미예랑 소극장 연습실에서 공연을 앞두고 연극 연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 성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뒤 늦깎이 열정을 불태우며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40분짜리 창작극이다. 모든 대사가 제주 사투리로 돼 있다.

“다”며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소통하고 공유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단원 중 최고령자인 박은식 씨(69)는 “이 나이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연습하고 있다”고 했다.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 어도예술극단 김광희 대표는 “이번 작품은 마을주민들 간 내 편, 네 편하는 ‘편 가르기’ 문화와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 간 다툼 등 우리 사회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소통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빛누리실버연극단’ 9월 공연 앞뒤편 연습...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

오는 9월 첫 선을 보이는 연극의 제목은 ‘쇠눈이 크텐 해도 의논이 커’. 소 눈이 크다고 해도 서로 의논하는 게 더 크다는 뜻의 제주 속담이다.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 작품은 마을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 간 갈등을 소통의 과정을 통해

단원들은 공연을 2개월 여 앞두고 매주 2회 이상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맹연습을 하고 있다. 외웠던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동선이 헷갈리는 등 실수도 연발하지만 열정만은 대단하다.

연극단 고인숙 단장(68)은 “연기에 몰입하다보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든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8972명에 급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8972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급식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결손가정 아동 등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지원 대상자 중 126명에게는 매일 조·식식 도시락이 배달되며, 6812명에게는 주 1회 부식이 지원된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2034명은 석식을 지원받는다.

이번 급식지원 대상자는 일제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한편 제주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아동급식 특별점검반을 편성, 도내 모든 급식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급식소 위생상태, 식재료 보관상태, 유통기한 준수여부, 식중독 예방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위기 가장 돕는 희망복지지원단
시설 탐방-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우수시설’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수영대회’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민선5기 사회복지 공약 실천 평가 토론회
- 지역네트워크 8면
문화·농업 융합약 체결
지역네트워크소식



8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9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j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청소년 요트체험교실	기초체력훈련, 요트체험 등	1~16일 매주 화~목요일 오전 화순해수욕장 서귀포국제요트학교	702-0295
	2012 KT제주배 전도장애인 IT경진대회	IT경진대회	예선전 28일 10~21시, 모집기간 20~28일 온라인 접수	702-0295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가족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요리체험, 미술창작활동 등	6~25일	796-9093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청소년 IT ProBono	우리들만의 영상기획, 아쿠아플라넷 관람 등	17~29일 2박3일간	747-3273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아동학대 예방법 등	홈페이지(www.sgp1391.org) 접속 후 교육	732-1391~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사업 공감커뮤니케이션	공감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언	22일 14~17시, 6일까지 선착순 모집	702-3784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2012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	제주도내 6개 장애인 음악팀 참가	31일 19시 탐동해변광장	751-8096

위기 가정 돕는 ‘희망복지지원단’

제주시, 저소득층 등 64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공·민간 급여·서비스·자원 등 연계 지원

제주시가 운영 중인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 수요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족한 희망복지지원단은 7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위기에 처한 64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가구의 유형을 보면 한 부모가정과 장애인가정이 각각 16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노인 11가구 등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벌써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원단은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데다 근로능력을 상실해 생계를 걱정하던 서모씨(54·제주시 구좌읍)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지원하고 식료품과 생활용품도 지원했다.

또 병원 치료 등의 연계 조치 덕분에 서씨의 건강이 많이 호전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원단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에서 별 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던 김모씨(52·제주

시 애월읍)를 차상위 우선돌봄 및 저소득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거비 지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지원단은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부문 서비스자원 연계와 상담,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지원 체계 구축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들 사례관리 가구들은 주로 폭력, 방임, 양육기피, 알코올중독, 우울증,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 어울림 한마당 축제

제17회 여성주간을 기념해 제주시 주최로 지난 7월 12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여성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여성들이 공연을 관람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제17회 여성주간을 기념해 제주시 주최로 지난 7월 12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여성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가한 여성들이 공연을 관람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제주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전국에서 처음…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연말까지 5개월간 도내 중증장애인 7672명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400명을 직접 방문,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장애등급 1급 및 2급

장애인이다.

조사 내용은 주거환경, 교육, 결혼,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 조사를 비롯해 가족 및 대인 관계, 취미생활 등 사회·심리적응 상태, 질병, 흡연, 음주 등 보건건강 상태, 취업, 경제활동, 편의시설 등 자립생활 실태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당사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에 활용된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박희수 의원

복지안전위원장 신영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후반기 의장에 4선의 박희수 의원(민주통합당·사진 위)이 선출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2일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박희수(51)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재적의원 4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0명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뽑혔다. 신임 박 의장은 2014년 6월 말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날인 3일 후반기 부의장에 방문추 의원(민주통합당)과 한영호 의원(새누리당)을 각각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자

치장에 김

용범 의원

(민주통합

당), 복지

안전위원

장에는 신

영근 의원

(새누리

당·사진

아래)이

각각 당선

됐다.

또 환경도시

위원장에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문화

관광위원장에 안동우 의원

(통합진보당), 농수축·지식

산업장에 김희연 의원(민주

통합당), 교육위원장에 문석

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 고정식·

김경진·위성곤·윤춘광·

현정화 의원이 배정됐다.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 종합대책 시행

제주시는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우선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마을금고 등 냉방시설을 갖춘 시설 31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폭염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이·통장, 리사부장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염발령 상황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한다.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폭염 기간 중에 독거노인 가구 방문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농어촌사랑기부금사업에 선정

아노제노인공동생활가정은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한 ‘2012 농어촌사랑 기부금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시설 정비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농어촌사랑 기부금은사업은 농어촌지역 아동과 청소년 교육, 저소득층의 자립, 농어촌지역 의료 건강 증진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에

고성도 前 상하수도본부장 취임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신임 원장에 고성도 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사진)이 지난 7월 1일 취임했다.



고 신임 원장은 지난 1974년 공직에 입문한 후 2010년 6월 명예퇴임하기까지 36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제주도 예산담당관, 상하수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가정센터, 의료비감면 협약

제주다문화가정센터(센터장)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채운배), 한미음병원(병원장 김종호)은 지난 7월 11일 동부경찰서에서 다문화가정 의료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도 협회장에 최영열 원장

제3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협회장에 최영열 일배움터 원장(사진)이 선출됐다.

최 신임 협회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들 간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자활사업 참여기관 지원 확대될 듯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활성화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기관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예에 나선 이유는 최근 용자금 신청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용자 지원 위주의 기금 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

활사업 참여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자립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융자금 한도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담보, 무보증 용자 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기금 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센터에서 추천한 이주여성과 자녀, 남편 등은 한미음병원에서 의료비를 10% 감면받는다.

시설함방

(57)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만들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절대로 학대받거나 방임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방임, 유기 등 어린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수도무다. 지난 7월 1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을 찾았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지난해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39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7건이었다.

학대 가해자를 보면 부모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내 학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어 조부모 5건, 친인척 2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중박학대가 3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19건, 방임 13건, 성 학대 4건, 신체 학대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임이나 정서 학대 같은 소극적인 학대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통계 수치로 나타나는 아동학대보다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가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다는 의심이 들어도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91(아동



아동학대 대부분은 부모...방임·정서학대 ‘심각’ 피해 아동 보호·치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

상담전화)이나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00년 9월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란 이름으로 문을 연 뒤 2005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이 기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검사실, 놀이치료실, 부모상담실 등을 갖췄다.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빙세기그림홈’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기 모호하거나 자체 사례회의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는 의료, 법률,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지속적인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은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응급치료와 학습지도, 가사지원 및 물품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을 병행한다. 아동학대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폭력 예방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 공을 들이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방문, 학생과 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폭력 예방(CAP)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정원철 관장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아동학대 예방의 최일선에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712-1391~4

“장애인 인권·권리 증진 위해 노력”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지난 7월 19일 제주파라다이스회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지난 7월 19일 제주파라다이스회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원, 고희범 제주포럼C 대표, 인권포럼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현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과 장애인정책을 동정과 시혜의 차원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첫발걸음을 내딛은 10년 전의 열정으로 우리 지역사회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증진, 정치참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준협 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과 김태환 전 제주야간 학교 팀장 등 2명에게 재직 기념패를, 노래패 자조모임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양성미씨와 후원회원 김광범씨 등 2명에게는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태고원, 요양서비스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주태고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주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태고원은 지난 6월 26일 광주 kt정보통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태고원 강민희 사회복지사는

이날 대회에서 태고원이 지난 해부터 시행해 온 ‘어르신들의 변비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들이 참가했다.

한편 이 대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건강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
임시총회 사무국장 등 선출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지부장 황의식)는 지난 7월 23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사무국장에 문소연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장을 선출했다.

또 신임 제주지회장에 성진숙 구업지역아동센터장을 인준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는 올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윤 읍장, 日 아라카와구
사회복지평가서 번역 출간

김남윤 제주시 구좌읍장(51·사진)이 일본 아라카와구청이 발간한



‘2010 사회복지사업 평가서’를 번역해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행려자 등을 대상으로 아라카와구청이 시행 중인 복지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어 원문도 함께 수록했다. 김 읍장은 지난해 제주시 우호교류 도시인 아라카와구청에 파견 근무하면서 일본의 복지제도와 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제주의 사회복지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하다 책 발간을 결심했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4년 연속 '우수시설'

제주, 전국 시·도 평가 결과 우수...예산 지원
상당·관측 항목 '만점'...해마다 매출액 증가

제주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시설장 양창오)이 전국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제주시에서 따르면 제주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한 '2011년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제주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은 지난 2008년 이후 4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제주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은 이번 평가에서 상당 및 관측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

으며, 꾸준한 매출 신장과 다양한 물품 판매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 분기별 자체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출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점도 높이 평가됐다.

이 평가는 장애인복지지침에 의거, 매년 전국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우수시설을 평가한다.

제주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의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08년 10억9900만원, 2009년 16억9700만원, 2010년 20억5200만원, 지난해 23억4800만원 등



▲제주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이 4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 됐다. 사진은 준강장애인근로센터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11억79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현재 제주시지역에는 준강장애인근로센터를 비롯해 일배움터, 길직업재활시설,

한라원, 엘린 등 6개의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는 장애인 188명이 근무하고 있다.

생산품은 사무용품, 현수막, 상패, 세탁, 공예품, 화훼류, 제과제빵, 물수건 등 다양하다.

아동 여름나기 프로그램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지난 7월 21~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귀포시 지역 아동, 자원봉사자 등 40여명과 함께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야호! 침방 반짝 폴짝 신나는 여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후원을 받아 아동들이 건강하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아동들은 볼놀이, 댄스, 보드게임, 볼링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배움터,목공예동아리 운영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중증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목공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심심타파 즐거운 토요일'이란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이 동아리는 일배움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참여해 목공예 기술을 배우고 있다.

목공예 동아리는 총 20회기 과정으로 열린다.

국제대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지역사회현장 소통 워크숍



제주국제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원장 신영호)은 지난 7월 2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지역사회 현장 소통과 화합'이란 주제로 2012년도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제주국제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원우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제주지역사회 현장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변화관리 및 지역사회지원의 네트워크 활용방안, 지역사회변화관리 및 인권, 웃음치료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원우회 및 동문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소/식/마/당

지적·자폐성 장애인보호시설 연합캠프



2012년도 제주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연합캠프가 지난 7월 12~13일 1박 2일간 남원 금호리 조트에서 열렸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볼놀이를 비롯해 카드 뒤집기, 과자유희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혜정원 아가의집, 행복만들기 나들이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지난 7월 14일 사단법인 동려 주최로 '행복만들기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봉사단 '초아' (초처럼 세상을 밝히는 아이들)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바이크랜드와 에코랜드 등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들이 어울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지적장애인 통합멘토링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 3월부터 여성 지적·정신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지적·정신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과 월 1회 문화이용훈련 및 사회참여훈련, 대중목욕탕 이용, 요리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1004지역사회봉사단 대표자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지난 6월 30일 협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1004지역사회봉사단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4봉사단으로 위촉된 봉사단 대표자 14명이 참석했으며, 1004지역사회봉사단 운영현황 보고 및 봉사단별 사업내용과 지원사항 안내, 지역사회 봉사단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 실시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는 지난 7월 20일 강대옥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를 초청, '장애아 부모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이란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아동의 교육 및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자녀지도 및 대화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한라원, 천연염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라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박상현)은 지난 7월 13일 범죄예방제주지역협의회 소년선도분과 서부지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천연염색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설 이용 장애인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앞으로 다양한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수영대회 ‘눈길’

7월 28일 삼양해수욕장서 열려...전국 500명 참가
한라수영장서 제6회 전국장애인수영대회도 개최



▲지난 7월 28일 오전 삼양해수욕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8회 어울림바다수영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어울림바다수영대회 모습.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영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회장 임태봉)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 주최로 지난 7월 28일 오전 삼양해수욕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

는 제8회 어울림바다수영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평소 갖고 닦은 수영 실력을 뽐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삼양 검은모래해변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바다체험 행사에도 참가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제주한라수영장에서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수영선수와 가족, 임원,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초·중·고·일반부로 나뉘어 자유형, 평영, 접영 등 종목별 경기가 치러졌다. 제주도 대표로는 34명의 장애인 선수가 출전했다.

어울림바다 수영대회와 전국장애인수영대회는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와 장애인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해마다 제주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열린다.

임태봉 회장은 “어울림바다 수영대회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협력자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장애인 선수들의 수영 실력을 겨루는 대회도 별도로 열려 참가 선수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능력 향상 위한 여름캠프 진행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시설 이용 장애인과 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16~17일 1박2일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형성’이란 주제의 캠프를 진행했다.

제주시 애월읍 남국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조별 활동을 통해 동료 간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고 도내

관광지인 ‘생각하는 정원’을 관람하는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 측에서 점심식사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민숙 원장은 “많은 분들이 이번 캠프를 후원해주신 덕분에 캠프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직장에서 벗어나 외부활동을 통해 단체생활에서의 협응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희망릴레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올 상반기 94회 교육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2012년 ‘작은 손 큰사랑 희망릴레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인형극을 통해 성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아동 스스로 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 상반기 동안 총 94회에 걸쳐 지역내 어린이집



원아 49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덕의집, 자선 아카데미 중간설명회 개최

장애인생활시설인 ‘제주애덕의집’(대표 현성훈 신부)은 지난 6월 28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지원사업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Charity(자선) 아카데미’ 중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강좌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용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강좌를 선택했다면 이번 강좌별 중간 설명회는 이용인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강좌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강좌가 맞지 않거나 다른 강좌에 참여하고 싶거나 자신이 선택한 강좌



이외에 다른 강좌에 참여하고 싶다는 등의 변화된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결과 이용인들의 욕구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각 강좌별 참여 대상자를 조정, 지난 7월부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 잊지 못할 가족캠프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김관호) 제주가정개발센터는 지난 7월 13~14일 1박2일간 ‘잊지못할 추억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름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저소득 가정 아동과 부모 80여명이 참여해 옥수수 수확, 수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제주가정개발센터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도내 저소득 가정의 결연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가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전개해 왔다.

관광지인 ‘생각하는 정원’

을 관람하는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 측에서 점심식사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민숙 원장은 “많은 분들이 이번 캠프를 후원해주신 덕분에 캠프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직장에서 벗어나 외부활동을 통해 단체생활에서의 협응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제주케어하우스 이용자 제주여행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지난 6월 27일 ‘다음(Daum)과 함께하는 제주여행, 설레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Daum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시설 이용자 27명과 일일 자원봉사자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서귀포 유람선을 타고 정방폭포, 외돌개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요리파티’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지난 7월 2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CJ도너스 캠프 신입사원들과 함께 하는 요리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CJ도너스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센터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음식을 만들고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7월 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306kg ▲김치원=김치 40kg ▲몽생이그룹홈=신발 10켤레 ▲빵따아모=빵 83봉 ▲삼다유통=삼다수(2LX6개) 300팩 ▲서문식품=두부 432모, 콩나물 160봉 ▲아산재단=쌀 200kg ▲이든이네=밀치 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143kg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쌀 64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X6개) 150팩 ▲파라바게트 동광초점=빵 720봉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850,000	85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360,000	360,000
복지사업후원	975,000	3,074,500
푸드마켓후원	5,325,000	6,700,690

*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런던올림픽과 폭염 그리고 제주올레길



김 범 훈
전 제주일보논설실장

지금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은 무엇까, 누가 뭐래도 런던올림픽 소식이 압도적이다. 런던은 서울과 8시간 시간차 때문에 경기는 주로 새벽(한국시간)에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TV중계를 통해 응원하느라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투지와 국민적 성원이 모아지고 있음에 자긍심을 갖는다.

지금 우리사회 주요이슈는

다음 이슈로는 폭염이 아닌가 싶다. 기상대는 8월 중순까지 폭염을 예보하고 있다. 폭염을 이기는 지혜도 각양각색이다. 개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삼계탕이나 보신탕 등으로 몸의 기운을 돋우면서 나름대로 더위를 씻어내곤 한다.

그런 가운데 제주올레길도 안전 문제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발단은 지난 7월 올레길 탐방하던 여성 관광객이 피살된 데서 비롯되었다. 피의자가 인근마을 40대 남성이었다는 점도 충격적이었다. 도민사회는 경악과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을 표방하며 걷기열풍을 선도한 제주올레길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 여성 혼자 걸어도 안전한 유일한 길이라는 국민적 인식에 근원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치유의 길이자 사색의 길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제주올레와 제주도 등은 여행자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CCTV 설치, 경찰배치 등을 다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제주올레길 안전문제는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다. 물론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더욱이 2007년 9월 제1코스 개설이후 오는 9월 5주년을 맞아 모두 26개 코스 430여km(보조 5개 코스 포

함) ‘걸어서 제주 한 바퀴’를 시대를 열며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제주올레길에서 다양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를 올레길 전체의 불안으로 비화 자극하거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올레길 곳곳에 CCTV 등 각종 감시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 문제로 시험대 오른 올레길

올레길 어디선가 공권력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 제주의 풍광을 벗삼아 걸으면서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하는 제주올레길의 정체성과 순기능 등은 훼손될 게 뻔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안전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 올레길킴이 제도 운영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주민과 행정, 경찰과 (사)제주올레 등 모두의 중지를 모을 일이다. 이제 제주올레길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의 치유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나설 때다.

시론

나는 소원한다.
복지병에 걸려보기를

요즘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슈는 유럽에 드리워진 암울한 경제관련 소식들이다. 그리스를 필두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하니 국민들 역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순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런데 필자를 어찌 구니 없게 하는 것은 유럽발 경제위기를 진단하는 보수 언론(소위 조중동)의 허접한 논리이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가 심각해진 나라들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복지분야 투자비율이 낮은 나라들이다. 이런 국가들의 위기 원인은 금융권의 부실과 정부 경제정책의 오류라 할 수 있다.

‘복지투자’ 경제선순환의 고리

그리스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관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던 경제구조, 유로존에 편입되어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초래된 독일 등에 대한 경제 존속 심화, 무기상들의 정치로비에 의해 과도하게 쏟아 부은 군비 등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반면 북유럽권 국가들과 독일 등은 경제성장과 복지안전망간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이해하여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복지안전망을 튼실히 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결과 금융위기를 무난하게 넘기고 있는데 이 언론들은 이런 나라들이 위기를 비껴갔다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경제위기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대한 맹목적 믿음, 정치집단과 금융전문가간 카르텔도 포함된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 보았듯이 정작 금융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일명 월가의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보너스로 챙겨 잔치를 벌인 반면 국가에서는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전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부었고 그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이게 미국만이 이야기일까. 저축은행사태를 보자. 매일 뉴스에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저축은행 경영진과 정치인(이번엔 대통령의 형도 포함된 것 같다)들의 비리와 부패가 겹으로 들어난 금융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정부자금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다.

그런 반면 이제 막 시작했던 부분적인 영유아 무상보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보육정책에 투자할 재정은 이런 이유로 답보되거나 후퇴되는 것이다. 결국 커다란 금융혼란을 야기했던 돈 빼 간 부류는 온전히 살아남았고 그 고통은 서민들끼리 나눠 갖는 형국이다.

이번 유럽발 경제위기에서 선방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전 총리 빔 록은 최근 한국방문에서 “유럽에서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정책이 덜 발달된 나라로 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정책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복지투자가 경제선순환의 고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보수 언론은 북유럽국가의 복지체계에 비판하고 있다. 복지병이 문제이고 과도한 복지투자로 인해 결국 재정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는 소원한다. 복지병에 제대로 걸려왔으면 좋겠다.

기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디며



구 용 남
인덕면사무소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올해 사회복지 9급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갔다.

근무지는 복지대상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면사무소다. 사회복지업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면사무소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었다.

공직생활을 한다는 설렘과 많은 지인들의 격려 속에 출발했지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걱정이 앞섰다.

생각보다 배워야 할 업무가 많

았고 그만큼 책임감도 필요했다. 내가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업무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업무였다. 노인복지 업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회 운영 및 경로당 운영 등을 지원한다.

처음에는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만날 때 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 전화도 드려다보니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신다.

복지욕구를 가진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찾고, 나는 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또 한가지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제도적인 복지 자원이나 사회복지 근무환경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사회복지사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지망 안으로 끌어들이야 하는데 쏟아지는 많은 업무와 전담직원의 부족으로 능동적인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전부 충족되도록 항상 노력하지만 한정된 정부의 자원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달인력을 늘려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개선해 나간다면 문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사회복지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간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론으로 배웠던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타심을 가져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베풀 끝에서 있는 빈곤계층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데 힘을 보탬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리라 다짐해 본다.

❖ 공약실천 평가토론회 - 민선 5기 사회복지공약,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공약 절반은 '정상 추진' 절반은 '미흡'



▲지난 7월 1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민선5기 사회복지 공약,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공약실천 평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박주희 의원 "도정강력한 추진 의지 있어야 이행 가능"

고현수 회장 "복지투자순환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7월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관련 공약 이행 정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업이 각각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철저한 공약 재검증을 거쳐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박주희 의원)과 '2010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대표 김성산)은 지난 7월 1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민선5기 사회복지 공약,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주제의 공약실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사회복지 관련 공약 27개 세부과제를 분석, 평가한 결과 절반 가량은 정상 추진되거나 완결됐으며 절반 가량은 이행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사 배치 확대 ▲사회복지예산 단계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조례 제정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지원 전면 시행 ▲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확대 등 13개 공약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노인수당 지원 확대' 공약은 이미 완결됐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2014년 전면 실시 ▲야간돌봄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13개 공약사항은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관련 공약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약사업 7개 중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와 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확대 등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을 비롯해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설립 등 5개 사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임기 내에 2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도마에 올랐다.

우 지사는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10년 17%, 2011년

18%,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한 전체 제주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20.1%로 목표치 20%를 달성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17.08%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된 보건, 노동, 보훈, 주택, 4·3, 해녀 등의 예산을 제외할 경우 순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행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향후 도정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공약 이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계획예산 대비 투입예산이 100%를 초과해도 추진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것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약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공약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2년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은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이어 발제에 나선 고현수 사회복지미래연구회장은 "민선 5기 임기 내 사회복지예산 25%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출구전략은 선(先) 경제, 후(後) 복지라는 잔여적 복지모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 4·3 예산과 해녀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특별행정기관을 제외시켜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게 고 회장의 주장이다.

앞서 '2010 제주사회복지

아젠다포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들에게 자체 선정한 사회복지 관련 7개 의제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청했는데 당시 우 후보는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사회복지기본 조례 제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 등 5개 의제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복지특별보좌관 임용 및 개방형 직위 신설은 부분 수용 입장을, 제주특별자치도복지재단 설립 제인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회장은 "제주도는 돈, 사람의 이동을 보장해 부를 걷어들어겠다는 개발패러다임의 환상에서 벗어나 사람 투자, 복지 투자가 성장을 가져온다는 선순환적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문화나눔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제주사회복지협의회-문화예술재단, 업무협약 체결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위해 공동 노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회장(사진 왼쪽)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양영흠 이사장이 7월 30일 사회복지협의회 심다수홀에서 ‘제주문화나눔공동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이 소외

계층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7월 30일 사회복지협의회 심다수홀에서 이동한 회장, 양영흠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문화나눔공동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소외계층을 발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예술재단은 이에 따라 문화비우치,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마다 (바깥)구경시켜줘 고맙습니다”

60대 지체장애인, 조천읍장애인지원협회 감사의 편지

제주시조천읍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김순옥)가 주최한 ‘행복한 세상나들이’ 행사에 참여했던 60대 지체장애인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지난 6월 김순옥 회장에게 보내와 진지한 감동을 주고 있다. 조천읍에 거주하는 2급 지

체장애인 김모씨(67)는 편지를 통해 “해마다 (바깥 나들이) 구경을 시켜주셔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록 한글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체 역시 비뚤배똥했지만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그의 글에는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의약품을 담았던 종이상자의 한 귀퉁이를 자른 뒤 상자 안쪽 면을 활용해 300자 남짓한 4문장의 짝막한 글을 적어 보낸 것이다.

앞서 조천읍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4월 29일 조천읍지역 재가장애인 28명을 초청, 고사리꺾기대회에 참석한 후 민요를 관람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1일 나들이를 다녀왔다.

자원봉사 참여 후기

사람향기 가득했던 위탁아동 ‘사람책 도서관’



홍 종 완

제주대 사회학과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를 보면 주인공인 윌리엄 포레스터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너무 어려서 자신의 소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장래 희망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뤄낸 인생선배의 조언을 듣는다면 어떠할까?

필자는 지난 6월 29~30일 이틀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프로그램 ‘사람책

도서관’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다. 위탁아동들이 평소 만나고 싶어 하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가 및 종사자를 사람책(멘토)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직업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한 지식을 나누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다.

캠프 첫날, 아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꿈과 장래희망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꿈은 있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아이들은 많지 않았다.

다음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책’과의 만남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내 걱정과 달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경청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나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다. 멘토 선생님들은 능숙하게 아이들의 궁금한 점이나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춤 상담을 해주셨다. 자신이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그 직업을 갖기 위한 방법, 닥쳐온 위기, 그리고 고충이나 단점 등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눈과 귀를 통해 생생

히 전해졌다.

‘사람책’과의 만남이 끝난 후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며 자립계획서를 쓰는데 막연했던 꿈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된 모습이였다.

사람책새 물린 나는 ‘사람책 캠프’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한발 내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책과의 소통을 통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은 앞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사람책으로 참여한 여러 직업군들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심껏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 또한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 앞으로 ‘사람책 도서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인생이라는 거칠고 긴 항해에 있어서 등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역네트워크 소식

▶ 전남, 복지재단 설립한다

전라남도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수도 전남’ 건설을 위해 전남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7월 23일 도의회에서 전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사회복지계, 학계, 도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남복지재단 설립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전남형 복지모델 정립과 정책 개발 ▲사회복지서비스 관

리체계 구축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민·관 합동 전담복지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남복지재단의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사회복지기금 174억원을 출연해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연구기능 중심의 정책개발팀을 포함해 1차 3팀 16명의 조직으로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 제정을 거쳐 설립준비단을 발족, 내년 5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 대상 역사탐방

서울시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4대 궁과 근대유산 사적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연극으로 재연하고 전문해설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는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은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완성된 대본을 토대로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도심 4

대 궁궐과 근대사의 중심지 정동지역에서 전문 배우들의 연기로 주요 장면을 연출한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는 방학특별프로그램으로 근대사를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금·토요일에 총 30회 실시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숲’ 조성

경기도는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자 및 방문객들의 정서함양과 질병치료를 위한 ‘녹색복지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산림청 녹색사업단 녹색자금(복

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노인·어린이들의 회복과 사회성 증진 등을 돕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양평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과천 과천시노인복지관 ▲김포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성남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에 설치됐다.

▶ 광주시, 장애인 이용 모범음식점 선정

광주시는 장애인들의 음식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구와 화장실 등 이용에 불편이 없는 120개소를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이를 수록한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유관기관과 장애인 단체 등에 배포했다.

광주시는 모범음식점 669개소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 소비자 식품위생감

시원 126명이 참여토록 해 음식점 주출입구와 식당 내부 환경(입식탁자 설치여부), 화장실 출입가능 여부 등 3개 분야의 시설과 환경을 조사해 3개 분야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는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669개소 중 동구 24개소, 서구 44개소, 남구 6개소, 북구 37개소, 광산구 9개소 총 120개소이다.